

# 통합체육회 출범 시작부터 '삐걱'

### 업무분장 이뤄지지 않고 직원들 직급 문제 등 갈등

대한체육회가 25년 만에 하나의 단체로 출범하면서 김정행 회장과 강영중 회장은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며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통합 대한체육회의 공동 수장을 맡은 김정행 회장과 강영중 회장은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그러나 공동 회장 체제에서 업무 분장이 이뤄지지 않았고 직원들간 직급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갈등을 빚는 등 출범부터 난맥상을 드러냈다.

김 회장과 강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지만 두 기관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김 회장은 한국 엘리트 체육을 대변하는 대한체육회를 강 회장은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장을 각각 맡아 왔다.

김 회장은 일단 "양 단체의 기존 인원에 맞게 분담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올림픽은 제가 나머지 업무는 논의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대한체육회 직원들이 업무를 연속성 있게 끌고 간다는 차원에서 김 회장이 맡는 게 낫겠지만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체육회 관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김정행 회장을 대한올림픽위원회(KOC) 회장으로 인정하고 있어 올림픽과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통합 대한체육회장 취임식에서 김정행(왼쪽), 강영중 공동회장이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된 업무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통합체육회 인사권과 예산 관련 권한 등 내부 업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통합체육회 사무차장 인사가 하루 만에 반복된 것과 관련해서도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체육회는 21일자로 사무차장에 백성일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경기국장 등을 발령했다가 하루 뒤 이를 철회했다. 김 회장은 "사무차장 내정자가 평창동계

올림픽조직위에 파견 근무 중인데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한 것"이라며 "미리 평창조직위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통합 대한체육회는 25일 제1차 이사회를 열어 사무총장을 선임할 예정이지만 이 자리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직원간 직급 문제가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다. 두 기관이 합쳐진 만큼 직원들간 급여나 인사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두어서는 안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날 대한체육회 노조는 직원 상경례에 불참하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오는 31일 노사협의회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지만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적인 통합은 이뤄졌지만 온전히 하나의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자칫 한 자봉 이래 두 기관이 불안한 동거를 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김민근기자



전북축구협회-중국 사천성 청소년체육클럽 협약

전라북도축구협회(회장 김대은)가 중국 사천성 성도시 금우구 국가청소년체육클럽과 한중축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교류는 청소년 축구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방학기간을 이용해 상호 방문을 통한 기술 습득 및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유종의 전무사는 "본 협회 사무국에서 양국의 실무자간 담화가 있었는데, 청소년 축구 선수들 간의 교류인 만큼 서로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라는 의견에 양국 선수들 간의 홈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에 합의했다"며 "어른들의 교류가 아닌 아이들이 즐겁고 공부할 수 있는 교류가 되도록 운영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 봅슬레이대표팀, 썰매 테스트 위해 캐나다행

한국 봅슬레이대표팀이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썰매를 점검하기 위해 이날 말 캐나다로 출국할 예정이다.

29일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에 따르면 대표팀은 오는 29일 출국해 일주일간 캐나다 휘슬러 경기장에서 현대자동차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썰매의 시험 주행을 나선다.

연맹 관계자는 "새로운 시즌에는 새 모델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데 이를 아직 완료치 못했다. 그 절차를 진행하려 가는 것"이라며 "현재 대표팀이 타고있는 썰매와 현대차가 개발한 썰매를 비교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 5·8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들어올렸던 파일럿 원운중(31·강원도청)이 나서 썰매를 테스트한다.

당초 테스트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준공 중인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봄이 오면서 얼음이 녹는 등 경기장 상태가 완전히 양호하지 않자 시험주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캐나다행을 결정했다.

라트비아산 썰매를 이용한 대표팀은 지난 1월 열린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열린 2015~2016 IBSF 유럽컵 8차 대회에서 처음으로 현대차가 개발한 썰매를 타고 실전주행을 펼쳤다. 당시 원운중·김진수(21·상무) 조는 1·2차시기 합계 2분15초19의 기록으로 15위로 경기를 마쳤다. 뛰어난 성적은 아니었으나 첫 번째 주행인 점을 감안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끌어냈다.

/김민근기자

# 웨스트브룩 '트리플더블' NBA 오클라호마 5연승 질주

### 21점 · 15어시스트 · 13리바운드 올 시즌만 무려 15번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시즌 15번째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러셀 웨스트브룩의 활약을 앞세워 휴스턴을 꺾고 5연승했다.

오클라호마 시티는 23일(한국시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체서피어 에너지 아레나에서 벌어진 2015~2016 미국프로농구(NBA) 휴스턴 로케츠와의 경기에서 111-107로 승리했다.

웨스트브룩은 최근 전설적인 선수들과 견줄 만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21점 15어시스트 13리바운드로 개인 통산 34번째이자 올 시즌 무려 15번째 트리플

더블을 작성했다.

1988~1989시즌 이후 한 시즌에 웨스트브룩보다 많은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선수는 없다. 당시 매직 존슨이 17번, 마이클 조던이 15번의 트리플 더블을 기록해 웨스트브룩은 이들과 비견될 만한 시즌을 치르고 있다. 특히 3월 한 달 동안에만 기록한 트리플 더블 숫자만 6번이다. 1989년 마이클 조던이 4월에만 7차례 트리플 더블을 작성한 이후 가장 많다.

올 시즌 웨스트브룩이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날이면 오클라호마 시티는 어김 없

이 승리를 챙기고 있다. 통산 전적으로 따져도 30승패로 놀라운 승률이다. 기분 좋은 인연이 아닐 수 없다.

이날도 웨스트브룩의 트리플 더블에 케빈 듀란트(23점 7리바운드)와 디온 웨이터스(17점·3점슛 3개), 서지 이바카(15점 8리바운드) 등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휴스턴의 막판 추격을 뿌리쳤다.

휴스턴은 제임스 하든이 개인 최다인 16개의 어시스트와 함께 24득점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지만 오클라호마 시티의 징크스를 깨지는 못했다.

이날 승리로 오클라호마 시티는 5연승을 달리며 49승 22패가 됐다.

/김민근기자



### KIA 타이거즈, 2016 팬북 2만부 발간

KIA 타이거즈가 '동행(同行)·열정(熱情)을 컨셉트로 하는 2016시즌 팬북 2만부를 발간했다.

팬북에는 지난 시즌 결산과 올 시즌 전망을 비롯해 김기태 감독이 추구하는 '동행 야구'가 소개되고, 새 외국인 투수 헥터와 지크의 이야기도 실렸다.

또 유창식, 홍건희, 오준혁, 김호영, 이준영 등 병신년(丙申年)인 올 시즌 활약이 기대되는 원소(元帥) 선수들이 소개됐다. 올해 발간된 팬북은 1만원에 비전코리아(www.vjkaea.com)에서 판매된다.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내 타이거즈숍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김민근기자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